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옛책의 흠

안병희

국립국어연구원 원장

우리의 자랑할 전통문화의 하나에 책이 있다. 活字本에 사용된 다양한 금속활자는 너무나 유명하지만, 木版本도 똑같이 자랑할 만하다. 수백년이 지난 책도 종이와 먹에서 아직도 탄력성과 그윽한 향기를 느끼게 한다. 앞뒤로 약간 두꺼운 표지로 된 장정도 훌륭하다. 印面에는 오자와 탈자가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 책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일찍부터 높이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서구의 학문이 들어오고 우리 옛 책에 대한 서지학적인 연구가 본격화하면서 그 평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본 학자들의 연구에서 책의 흠이 드러났다. 그 흠을 식민지사관에 말미암는다고 치부할 수도 있다. 옛 책을 올바르게 알기 위하여는 史觀을 말하기 전에 사실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한다.

옛 책이 보이는 흠은 무엇보다 匡郭이라고 하는 印面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크기가 적당히 되어서, 匡郭의 세로만 보아도 2cm 이상까지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이것은 책장이 접힌 곳, 이른바 書口를 보면 금방 확인된다. 印面은 검정빛으로 나타나는데, 아래쪽은 가지런하나 위쪽은 들쭉날쭉이다. 책을 매면서 匡郭의 아래쪽 곧 下辺을 일정하게 하고 보니 위쪽인 上辺에서 크기의 들쭉날쭉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딱 이야기지만, 요즘 배접하여 다시 맨 책을 보면 下辺까지 들쭉날쭉인데 우리 古書의 裝訂法을 모르는 표구사의 소치다. 요컨대 장정에서 약간 조정은 하였으나 匡郭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일은 옛 책의 한 흠이다.

또 하나의 흠은 刊行에 관한 기록, 이른바 刊記가 아예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실이다. 누가 언제 어디서 출판한 책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校書館에서 출판한 중앙의 官版本은 대부분 刊記가 없다. 옛 책을 조금이라도 다루어본 사람은 종이나 版式 등으로 校書館의 책은 쉽게 알아볼 수 있으나, 刊行의 연대는 책의 형태나 內賜記와 序跋 등으로 추정해야 한다. 監營이나 고을 등 지방 관아에서 출판된 官版本이나 절에서 출판된 寺刹本에서는 刊記가 있다. 寺刹本은 책을 출판하는 데 施主를 한 사람들의 명단 곧 施主秩을 꼭 실어야 하기 때문에 刊行 연대와 절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刊記도 문제가 없지 않다.

첫째 연대의 표시 방법이다. 寺刹本은 중국의 연호를 사용한다. 淸나라 연호까지 거리낌없이 사용되어 연대 확인에 문제가 없다. 지방의 官版本은, 특히 淸나라 연호를 사용하여야 할 丙子胡亂 후의 책은 干支만으로 연대가 표시된다. 干支는 조금만 잘못 추정하여도 60년이 오르내릴 수 있다. 없기보다는 낫지만 干支로 표시된 干年은 연대 확인이나 추정에 문제가 있다.

둘째 刊行 차례의 표시다. 현대의 初版이나 再版과 같은 版次의 문제다. 原刊이 아닌 경우에 '重刊, 重刻, 改刊'이라 밝히기도 하나, 대개의 경우 原刊과 같이 '開板, 開刊, 印出'이라 한다. 이를 모르는 어떤 분이 근자에 1568년(선조8, 隆慶2) 喜方寺 중간의 月印釋譜(권1·2)의 刊記에 '開板'이라 하였다고 하여, 月印釋譜를 世祖가 편찬, 간행하였다고 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한 웃지 못할 일도 있다. 그것은 어떻게 옛 책의 刊記는 重刊本과 原刊本이 구별되지 않은 일이 많다.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려면 그 좋은 점만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 결점이나 시대적인 한계도 알아야 한다. 우리의 훌륭한 古活字가 木板에 대신하기만 한 한계점 때문에 근대의 印刷文化에 거의 기여를 못한 사실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판매를 생각하여선지 모르나 몇 십년 전 책을 그대로 찍어 내면서 이제 처음 출판하는 것처럼 된 版權紙에서 옛 책의 刊記를 연상하는 일은 지나친 반응일까? 옛 책의 흠을 他山之石으로 삼아, 우리의 책이 더욱 훌륭하게, 그리고 형태까지 정확하게 만들어졌으면 한다.

뉴스 2 '92 서울도서전 화려한 개막·외

표지인물 4 어색하지만 행복한 '구두와 책'의 만남
어린이도서관 설립하는 에스콰이어 이인표 회장

초점 6 편의점 도서판매 어떻게 이뤄지나
베스트셀러나 잡지류가 대부분... 일부 도매상이 유통 정착

서평 8 와이즈먼 외 「오늘날의 역사학」 — 최호근
대니엘 「고고학발달사」 — 임효재
9 이상은 「조선왕조복식사론」 — 김환덕
김재원 「박물관과 한평생」 — 이두현
10 현상학회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해석학」 — 신귀현
클렘 「기술의 역사」 — 남문현
11 한국일보 사회부 「신중년세대」 — 박길성
김남순 「교육재정과 교육비연구」 — 윤정일
12 권오룡 「애매성의 옹호」 — 서영재
윤정모 「들」 — 김성렬

화제의 책 13 사진속의 추억과 환상, 사실과 추상
김기찬 「골목안 풍경」 구본창 「생각의 바다」

현장취재 14 현해탄 건너 일본잡지가 몰려온다
중고생에게까지 파고든 일본대중잡지 수입실태

출판화제 16 정통기독교단의 '이단' 공격 거세진다
시한부종말론·뉴에이지운동 비판서 잇달아 출간

도서관화제 17 도서관장서를 집안에서 받아본다
장애인 위해 '택배서비스' 실시하는 '새날도서관'

리뷰 18 정보화사회를 향한 미래의 출판정책
크리스찬 아카데미 주최 출판정책연구 대화모임

이 책 그 사람 19 「김馬김鎭」 펴낸 허상수씨
「퍼지와 한국문화」 펴낸 김상일교수
20 「한국의 대학교수」 펴낸 이성호교수
「뽕점엄마 백점일기」 펴낸 조은일씨

특별기고 22 한 조선청년의 일본출판계 종횡기 — 최덕교

세계의 책 24 미국의 교과서검열 실태 — 배병삼

26 독자서평

28 이달의 청소년도서

30 화제의 신간

32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

40 신간목록

48 프리즘/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안내